다산포럼

김정남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로버트 프로스트(1894~1963), 피천득 역

가지 않은 길

'두 갈래 길'로 알려진 이 시는 내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이다. 정서가 달라서인지 마음에 와 닿는 외국시는 많지 않은데, 어쩐지 이 시는 인생에 대한 묘한 울림을 내게 주고 있다. 프로스트가 죽던 바로 그 해, 그를 기려 건립된 도서관의 헌정식에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행한 연설에서도 이 시는 맨 처음에 인용되고 있다. 이날 케네디는 '시와 권력(의 상호관계)'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케네디는 "권력이 인간을 교만으로 이끌 때 시는 그의 한계를 일깨워 줍니다. 권력이 인간의 관심영역을 좁힐 때 시는 인간존재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일깨워 줍니다. 권력이 부패하면 시가 정화(淨化)합니다. … 권력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위대함에 불가결한 공헌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역시 이와 똑같이 불가결한 공헌을 하며 특히 그 의문이 공정할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도종환이 국회의원이 된 뒤 그의 시가 실린 중학교 교과서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나 역시 도종환의 시, '접시꽃 당신'을 읽고서는 그의 진하고 따뜻한 감성에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고, '흔들리며 피는 꽃'이나 담쟁이와 단풍을 노래한 시를 통해서는 시인의 통찰력과 인생의 예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었다.

나는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야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가 국회의원이 된 뒤, 시인으로서의 그를 보는 눈이나 그의 시를 읽을 때의 느낌은 예전같지 않다는 것만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비단 나 홀로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놓고 정작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프로스트는 이 시를 통해 인생이란 그 시작에서 끝으로 이어진 오직 그 한 길밖에 갈 수 없다는 숙명과 한계, 그리고 가보지 않은 나머지 한 길에 대한 미련과 연민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네 인생은 이러저러한 환경과 제약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최초의 길에서 길로 이어진 그 한 길밖에는 갈 수가 없게 마련인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에서는 그나마 자신이 가야 할 그 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에게는 이제까지 제 뜻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여지마저 없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직 크고 넓은 한 길만이 있었을 뿐이다.

처음부터 그 길에 들지 못하거나, 그 길을 가다가 낙오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게 마련이었다. 다른 길은 있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으며, 설사 간다고 해도 그 길은 나락의 길이었다.

한국인들의 표준형 인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정규직에 취직함으로써 주류사회에 편입, 신분 상승을 이루고, 그에 걸맞은 상대를 맞아 1~2명 자녀를 두고 이 사회의 중견으로 활동하다가 65세 무렵 은퇴한 뒤에는 나름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표준이 달라지고 있다. 대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보다 많아지고, 평균 수명도 몰라보게 늘어났으며, 표준 가족도 4인 가족에서 1~2인 가족으로 바뀌었다. 1인 가족(25.3%)과 2인 가족(25.2%)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외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공부는 나중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길은 외줄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은 외줄기 한 번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가지 않은 길'도 가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선구자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가지 않았던 길이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언론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롯데, 중기 제품전 지역업체 '우롱' 말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역 우수 중기 상품전'에 참여하는 광주·전남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타지 업체의 판로를 위한 '지역 우수 중기 상품전'을 굳이 광주 점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광주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지역 중기 상품 초대전'을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우수업체들에 성장 기회를 주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행사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참가한 업체는 미강셀레늄, 엘키맥스, 지벨, 웰빙나라 등 모두 11곳으로, 대부분 수도권 업체이며, 이 지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백화점 측은 보도자료에 '우리 지역…'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며 눈속임까지 하려 했다니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만큼 좋은 제품을 만드는 지역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 강변할 정도다. 백화점 측은 또 매년 11월 광주은행과 함께 지역 제품을 소개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서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150여 곳에 이르고, 우수제품도 상당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에 납품하겠다는 전남지역 우수업체만도 34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 지역의 다른 백화점이 매년 '광주·전남 우수 중기 상품전'을 열면서 사전 모임을 갖는 업체만도 5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중 20여 곳이 선별돼 참여하고 매년 1~2개 업체는 백화점에 입점까지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제품 순회전시에 각 지역 대표상품을 골고루 소개하고, 해당 지역 대표상품은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롯데 광주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확실한 상생 의지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급식우유 한달치 받아가라는 교육당국

광주시교육청과 시청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학 중 학교에 나와 우유를 타 가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개학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한달 치 분량의 우유를 수령해가도록 통지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소동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애초 계획에 없던 방학 중 우유급식을 뒤늦게 시행하면서 벌어졌다. 당초 무상우유 급식 계획은 방학기간(70일)과 학기(180일)에 모두 1만6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으나 광주시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초에 시교육청과 우유급식을 중단하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미 방학에 들어간 지난달 말 예산을 확보했다며 교육청에 우유급식 시행을 요구하자 교육청도 부랴부랴 지난 8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우유급식을 지시했다.

학교 측도 서둘러 대리점과 접촉, 우유를 확보했으나 대부분 구입이 소량인 데다 휴가철 등과 겹쳐 대리점 측이 배달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우유값이 개당 380원으로 20개를 감안하더라도 7800원에 불과해 배달 비용을 고려하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큰 상처를 안겼다는 점이다. 배달이 어려워지자 영양교사들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지만 교육청이 개학을 코 앞에 두고 한달 치 우유 수령을 통지한 것이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공짜 우유 먹는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해 아예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이 끝나가는 마당에 유통기간이 일주일 정도인 우유를 한꺼번에 가져가라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를 바 없다.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행정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幹部

기 고

글로벌시대 우리 농업 어떻게 가야 하나

박민수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악화는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 대국의 곡물수출 금지,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새로운 미래 핵심 산업원료의 이용 등으로 곡물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국제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로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2010년도 곡물자급률은 26.5%로 쌀을 제외하고 밀·옥수수·콩 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도로·철도, 공장 설치, 신도시 택지건설 등의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서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경지가 없어지고, 생산 불리지역의 경지는 매년 잡초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 번 망가진 농경지를 원상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스위스·독일·프랑스 등 곡물 자급률이 높은 선진국은 농지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영농규모에 맞는 농가별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평균 1.46ha로 미국의 100분의 1수준으로, 작은 영농규모와 높은 생산비 등으로 인해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농가는 더욱 규모화·단지화해서 마을 또는 들녘별 기업농 등으로 육성하고, 중규모 농가는 다품목 소비시대에 맞게 품질과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틈새 소득 작물 재배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틈새 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할 경우 주 작목보다 더 많은 생산액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롱테일의 경제학'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소규모 농가는 토종 또는 약용작물 재배, 친환경농업 등 생태경관을 지키면서 이를 활용한 소득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농·공·상의 결합으로 농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농산물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상품성이 우수한 농산물은 높은 가격대에 판매하고, 과잉 생산됐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은 가공·저장 등을 통해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은 도매시장, 직거래, 전자 상거래 등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지역 농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역시 증대시켜야 한다. 따라서 생산·가공·유통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잘 팔리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농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업기술은 누에로 인공고막과 뼈를 만들고, 키를 크게 하는 기능성 쌀, 혈액단백질인 알부민 생산 쌀, 대장암 치료제를 만드는 콩, 인공 피부를 만드는 감귤, 인공장기를 생산하는 돼지, 벌독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제 등 먹을거리나 입을 거리로만 인식되던 농산물이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의 의료용, 기능성 신소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농업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새로운 기술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농업부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다섯째로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이 땅의 식품창고를 지키는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토를 가꾸는 농업인들의 수고를 제대로 이해해 먹을거리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이 사람과 자연을 잇는 생명산업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켜야한다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업의 경쟁력은 가격이 기본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게 바로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장〉

네팔에서 온 편지 〈22〉

삶의 의미, 고민해 보셨나요?

박행순

네팔에 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나온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다. 30대에 내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는 오히려 방황하였다. '호강에 잣죽'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방황할 여유가 생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때 삶의 의미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어느 날 네팔의 상류층에 속하는 한 의대교수가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생명(生命)이라는 단어 속에 '사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 교수는 '초월자의 명령'이냐고 물었다. 힌두교도이고 임상교수인 그가 내게 묻는 것은 생명의 신비나 생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30대 여성이 이야기 도중에 "왜 살아야 하는지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다. 이 여성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였고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삶의 목표인데 마지막 3차 필기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자꾸 먹어서 살이 찌고 공부에 집중은 안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은 것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여성이 묻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죽고 싶다'는 메시지로 내게 전달되었다. 그간 들은 바에 의하면 네팔 여성의 두 번째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한다. 쉽게 대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냐고 돌려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삶의 수단(means of life)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때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를 상실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여성에게는 공인회계사라는 목표가 곧 삶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야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내 친구 '하리마야'는 50대 중반의 마취과 수간호사이다. 작은 침실 두 개의 직원 숙소에 부부와 아들, 세 식구가 사는데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데려온 20대 전후의 형제가 함께 살게 되어 다섯 식구가 되었다. 친구는 그 형제를 병원 공사장에 취직시켜 주었고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일하면 한 달에 각각 10만 원쯤 받는다고 했다. 내가 처음 그 집에 초대받은 날, 형은 그간 번 돈과 선물 꾸러미를 들고 시골 아버지께 갔고 동생이 카레밥을 맛있게 만들어 내왔다.

친구는 앞으로 그 형제들에게 운전 기술을 배우게 해서 자립하게 하고 여동생은 중학교를 마치면 데려다가 간호조무사를 만들겠다고, 그 가족에 대한 장래 계획을 말해주었다.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신이 나서 설명하는 친구를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남들과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듯싶은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그 가정에는 조건 없는 사랑, 편안함과 친밀함이 감돌았다. 하리마야는 남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살아야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내가 사고로 코뼈에 금이 가서 수술하고 사흘 동안 입으로만 숨을 쉴 때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다. 자유롭게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았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사는 것 자체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세리머니

'독도'가 2012년 8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헌정사상 처음 독도를 전격 방문해 한일간 외교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에서 일본에 완승한 우리나라 대표팀 박종우(부산)가 관중석에서 넘겨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는 세리머니를 펼쳐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스포츠맨들의 '풍자 세리머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3월 한국 축구대표팀은 두바이에서 열린 부르키나파소와 평가전에서 김상식(전북)의 결승골이 터지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광고판으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것이 원조 독도 세리머니였던 셈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는 '안정환 세리머니'가 화제였다. 당시 조별리그 2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안정환이 같은 해 앞서 열린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 김동성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미국의 안톤 오노에게 금메달을 헌납했던 장면을 비꼰 것이다. 안정환은 역주하는 김동성의 모습을 흉내 냈고 이천수와 최진철이 뒤에서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을 패러디하며 우리 국민의 울분을 달래주었다.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후반 쐐기골을 넣었던 구자철의 세리머니도 인상적이었다. 애초 구자철은 골을 성공시킨 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재를 우려해 '만세 삼창'으로 대신했다는 후문이다.

스포츠를 통해 애국심을 다지는 것은 좋다. '박종우 사태'는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터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답게 세리머니가 몰고 올 파장까지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